

보도시점 2026. 6. 30.(화) 11:00  
7. 1.(수) 조간

배포 2026. 6. 30.(화) 09:00

## 경로당 무료급식단체에 친환경 정부양곡 첫 공급

-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향상을 위해 7월부터 친환경 복지용 쌀 본격 공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을 위해 7월부터 2025년산 친환경 공공비축미곡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고품질 친환경 벼 생산·소비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친환경 벼 공공비축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025년산 친환경 공공비축미곡 8,747톤(정곡 기준)을 매입하였다.

친환경 공공비축미곡은 2024년까지 군수용으로만 공급해왔으며, 국회 등에서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복지용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농식품부는 이를 반영하여 지난해 전라남도과 제주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하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친환경 공공비축미곡을 복지용으로 본격적으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우수 정부양곡 도정공장(S등급) 등을 친환경 농산물 취급자 인증 취득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원료곡 관리부터 가공·포장·출하까지 친환경 인증 관리 기준을 준수하게 된다. 특히, 인증품과 비인증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 관리하고, 입·출고에 대한 이력 관리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 정부양곡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복지용 포장재에 친환경 인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 공공비축미곡의 공급물량을 고려하여 복지용 쌀 공급 대상 중 경로당, 무료급식단체, 기초생활보장시설 등 20kg 포장 수요처 등에 공급할 계획이며, 복지용 정부양곡과 동일한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했다.

\* 친환경 벼 주산지인 전라남도는 복지용 수요, 사업 효율성 등 고려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10kg 제품도 병행 공급 예정

\*\* 복지용 판매가격(20kg) : 경로당 61,440원, 기초생활보장시설 24,850, 무료급식단체 6,710

농식품부 정혜련 식량정책관은 “이번 친환경 정부양곡의 복지용 공급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하는 동시에 친환경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는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1-1810)
		담당자	사무관	한재석 (044-201-1820)

